

大學生 副業의 實態와 活性化方案

姜 武 燮

(韓國教育開發院 責任研究員)

1. 머리말

고등교육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와 교육 기회 평등사상의 보편화, 교육적 욕구 수준 향상 등의 요인은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고학력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대학교육 기회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특정 소수 집단에 의해 독점되던 대학교육 기회가 일반 대중에게 보편화되면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대학교육 기회 획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교육 접근 기회가 확대되고 그 가능성이 높아졌음이 그들의 대학교육 수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획득된 대학교육 기회를 실제 교육의 이수로 연결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학금에 의존하거나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제적 부담을 학업과 병행해야만 한다.

대학생 부직은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자립하여 대학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학비나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경제적 동기로 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기와 같은 경제적 목적 이외의 비경제적 목적 즉, 근로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사회생활에의 참여, 진로의 탐색과 실 사회 경험의 체득 등을 위해 부직을 원하거나 실제 부직을 경험하게 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부직은 하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과외지도가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1980년 7월 30일에 단행된 교육개혁 조치로 과외 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대학생의 부직 기회는 현실적으로 크게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사회 일반에서는 대학생들의 부직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부직 영역을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부직 직종으로서 그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과외 지도를 금지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각종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부직 기회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각 대학들도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와 교내 부직 직종 개발 및 부직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생 부직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시키고 부직 대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단체와 부직을 알선하려는 대학, 그리고 부직을 원하는 대학을 연결시키기 위한 공익기구로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은행'이 경향신문사내에 설치되었다.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대학의 적극적인 부직 알선 업무의 추진, 그리고 공익사업 기구의 활발한 봉사활동 등으로 인하여 대학생 부직 직종과 부직 기회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나 현재 개발·활용되고 있는 대학생 부직의 직종이나 제공되고 있는 부직 기회 수준, 대학생 부직에 대한 인식 등은 전체 대학생의 80~90%가 부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미 선진제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수준과 인식에 있어서의 미흡성과 함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동기로 부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직의 직종과 기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부직 실태가 어떠한지 대학생들의 부직에 대한 요구 즉, 원하는 부직 근무 조건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대학생을 위한 교육 부직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대학생 부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大學生의 副職 實態

대학생의 부직 실태를 취업 실태, 사업체의 고용 실태, 관리 및 운영 실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취업 및 고용 경험, 동기, 직종, 경로, 근무 조건과 관리·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직 대학생의 취업 실태

대학생들의 부직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대학 재학중 1회 이상 부직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대학생 부직 경험률 84.0%나 일본의 91.8%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대학생의 부직 동기를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로 구분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부직 동기는 등록금 마련, 책값, 용돈 마련 등의 경제적 동기가 사회경험 획득이나 진로 탐색 등의 비경제적 동기에 비해 더 높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사회 경험 획득을, 여학생은 책값, 용돈 마련을 가장 중요한 부직 동기로 들고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등록금 마련을, 소득이 높을수록 비경제적 동기를 주된 부직 동기로 들고 있다.

부직 경험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의 근무 직종을 조사한 결과 55개의 직종이 추출되었다. 이들 직종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직종은 서어비스직, 사무직, 판매직과 관련된 직종들이며 사무 보조, 도·소매점 판매원, 공사장 노동자, 제조·생산직 근로자, 안내원, 다방 종업원, 조사 요원, 교통 질서 봉사대원 및 의관원 등이 있으며 이들 10개 직종에 근무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부직 대학생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체의 특성은 공공기관보다는 사기업체, 대규모 사업체보다 소규모 사업체로 나타났다.

부직 학생들의 부직 획득 경로로는 대학의 부직 알선 부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선배나 친구의 소개, 본인의 직접 접촉 등이다. 아직까지는 선배나 친구, 친척·가족 등의 연고 관계를 통해서 부직 기회를 획득하는 경우가 학교의 공식 알선 창구를 통한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직 획득 경로는 학교 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4년제 대학생들은 주로 대학의 부직 알선 부서를 경유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생들은 선배, 친구의 소개나 본인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부직 대학생의 근무 조건을 보면 근무 시간대로는 학기중, 방학중 모두 전일제 근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기중에는 자유시간 근무와 정시제의 오후 근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직 근무 시간수는 8시간 근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4시간 이하, 5~7시간의 순이다. 부직 근무 기간은 1~2개월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일~1개월 미만으로서 대부분이 단기 근무이다. 보수는 대부분이 월급과 일급의 형태로 받고 있으며 수준은 시간급인 경우 500~1,000원 정도, 일급인 경우 4,000~6,000원 정도, 월급인 경우 10~15만 원 정도가 가장 많다.

2) 부직 대학생의 고용 실태

정부 부처, 공공 사업체 및 일반 사기업체, 소규모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부직 대학생의 고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 사업체의 64.1%가

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 경험률은 미국 기업의 86.8%, 일본 기업의 73.9%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고용 정도는 사업체의 소재지 및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 소재 사업체의 고용 경험률은 80%로서 지방의 56.0%에 비해 훨씬 높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84%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부처, 국·공영 기업 등 공공기관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서울 소재 사업체가 지방의 사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

사업체의 부직 대학생 고용 동기를 보면 인력이 부족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업체가 전체의 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정규 직원의 채용이 곤란한 경우와 회사의 홍보 목적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부직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은 대학교육 수준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작업이 대부분으로(75% 정도), 대학의 전공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직 활용의 생산성이나 직업 교육, 진로 지도의 측면에서 보면 부직자의 전공 지식과 전문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직 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직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부직 직종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정도로 인하여 대부분이 전공과 무관한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체에서 부직 대학생을 고용하는 경로로는 경향신문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은행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학의 부직 알선 부서와 친척·직원 등에 의한 소개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업체의 소재지별로 고용 경로를 보면 서울의 사업체들은 경향신문사 대학생 아르바이트은행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대학 부직 알선 부서와 친척·직원의 소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경향신문사 대학생 아르바이트은행을 활용하고 있으나, 요식·유흥업의 경우는 주로 부직을 이미 경험한 학생에 의한 소개나 벽보·간판 광고 등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부직 대학생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여 구별 없이 모두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남녀 학생의 특성만을 고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들도 상당수 있었다.

부직 대학생의 고용 시간대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규모 사업체는 사업체의 운영상 정규 일과시간대에 부직 대학생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는 고용 시간대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는 대부분 일급과 시간급,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 수준은 시간당 500원, 일당 5,000원, 월급 15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大學生 副職要求 分析

부직을 원하는 학생과 부직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체의 요구를 부직 희망 정도, 부직 직종, 부직 시기 및 기간, 부직 근무조건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副職 大學生의 요구

부직을 갖고자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87.8%로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부직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직 희망자의 특성을 보면 특히 학년이 낮고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부직 희망 학생의 희망 직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부직 희망 학생들의 직종에 대한 요구는 사무직, 서어비스직, 판매직, 현장 작업직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사무직 관련직종 중에서도 사무 보조나 도서관 사서, 조사원 등을 많이 원하고, 서어비스직으로는 안내원, 그리고 판매직으로는 백화점 판매원 등의 비교적 근무 조건이 양호하고 육체노동을 덜 요하는 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부직 업체의 형태와 업종에 대한 부직 희망자들의 요구를 보면 먼저 사업체의 조직 형태에 있어서는 국·공영 기업을 가장 많이 원하고, 그 다음이 공공단체, 사기업체 등의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부직 업종은 신문·방송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융·보험·증권업,

인쇄·출판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융·보험·증권업과 인쇄·출판업은 여학생의 경우에 남학생보다 선호율이 더 높았다.

부직 시기와 기간에 있어서는 방학기간중의 1~2개월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으나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원하여 학기중에도 계속하여 부직을 갖고자 희망하는 학생도 약 30%에 가깝게 나타났다.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2개월 이상의 장기 부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중 부직 근무 시간대는 자유시간을 가장 많이 원하고 다음이 오후시간이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일제의 부직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전일제 부직 희망률이 높았다. 부직 근무 시간 수에 있어서는 학기중이나 방학중을 막론하고 1일 3~4시간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5~6시간이었다. 부직 학생들이 원하는 보수 수준은 시간당 1,000~1,500원 미만, 일급 4,000~6,000원 미만, 월급 15~20만 원선이 가장 많았다. 학생 특성별로 보수 희망 정도의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학교별로는 4년제 대학 학생일수록 특히 야간부 학생의 경우에 희망 보수 수준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고학년 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높은 보수 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2) 副職 大學生 雇用 業體의 요구

조사 대상업체 가운데 앞으로 부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는 26.9%에 불과하고 약 과반수 정도(46.9%)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부직 기회 확대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체 종사 실무진들의 부직 학생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인식도가 매우 높으며 부직 학생 채용 경험이 있는 경영자의 경우 미경험 경영자에 비해 향후 부직 학생 고용의 사가 높다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점차 부직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각 업체들의 상대적인 부직 학생 활용 참여율을 보면 규모면에서는 대규모 업체의 경우, 조직형태상으로는 정부기관이나 국·공영 기업의 경우, 업종별로는 일반 도·소매업이나 요식업, 유통

업, 숙박업, 금융·보험·증권업의 경우에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측이 요구하는 부직 학생 고용의 시기와 기간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학기중과 방학기간에 무관하게 고용하고자 하나 기간은 2개월 미만의 단기간을 요구하는 경영자와 직원이 많았다. 그러나 2개월 이상의 장기 부직을 원하는 경영자와 직원도 40% 내외로 상당수였으며, 특히 업체 소재지별로 볼 때 직할시 소재 업체인 경우, 조직형태상으로는 사기업체 그리고 업종별로는 요식업이나 유통업, 숙박업, 신문·방송업, 출판·인쇄업인 경우에 2개월 이상의 부직을 많이 원하고 있었다.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부직 시간대트는 전일제가 가장 많고 다음이 자유시간이었다. 특히 전일제 부직을 원하는 업체는 종업원 규모 면에서 대규모 업체일수록 그리고 조직형태상으로는 공공단체나 국·공영 기업체인 경우였다. 반면 사기업체나 영세업소, 업종이 요식업이나 유통업, 제조업인 경우는 학생에게 자유시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타 업체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측에서 제시하는 보수 수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간당 500~1,000원 미만, 일급 4,000~6,000원 미만, 월급 10~15만 원선이 가장 많았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조건을 보면 학생의 성, 학년, 전공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학생의 학교, 주·야간 여부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의 주간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높았다. 학생의 전공과 관련하여 인문·사회계 학생을 선호하는 정도는 공공단체의 경우에 특히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공학계 학생을, 무역업이나 숙박업 또는 출판·인쇄업에서는 타 업종에 비해 외국어계 학생을 선호하고 있었다.

4. 대학생 副職 開發 및 活性化 方案

대학생 부직의 실태와 요구 분석 결과에 대하여 대학생 부직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학내의 부직 활성화 방안과 대학 외부의 사회적 대책 그리고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부직 활성화 방안

대학내의 부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내 부직 기회의 확대, 교내 부직 담당부서의 신설 또는 확충,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학사 운영 일정의 조정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교내 부직의 직종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부직 기회가 확대·재공되어야 한다. 대학생의 교내 부직은 학업과 부직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닐 뿐 아니라 최근 대학의 조직과 형태가 대형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다양한 교내 부직 직종이 개발되고 그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부직의 확대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교내 부직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직종의 개발은 물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대학에는 부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의 학생 행정업무 관장 부서에서 부직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직 수요 증대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부직 알선 및 부직 학생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교내에 독립된 부직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혹은 기존의 담당부서의 부직 관련 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대다수 학생들의 부직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개발·활용이 요청된다. 즉, 이른 중심의 대학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실험 실습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부직을 산학협동 프로그램과 연결,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네째, 대학의 경직화되고 획일적인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부직 기회 확대의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부직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업과 부직을 병행함에 있어서 학업의 계속성이나 교과과정 선택의 어려움 때문에 부직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개설 수의 폭과 시간대를 늘리고 계절제 학기의 운영을 정착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2) 부직 개발을 위한 사회대책

대학생 부직 개발과 활성화를 위하여 부직 직종의 다양화, 부직 근무조건 개선, 부직 경험과 신규 사원 채용과의 연계, 그리고 부직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의 강구 등과 같은 사회대책이 요망된다.

첫째, 부직 대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부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 사회에서 부직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직종에서만 부직 기회 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생 부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직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부직 기회의 제한성과 절대적 부족, 부직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은 불리한 부직 근무 조건의 요인이 된다. 부직 대학생을 고용하는 업체나 단체는 단기적인 이익 추구의 차원을 넘어서 장래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부직 대학생을 고용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무조건도 현실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직은 단순한 학비나 생활비의 보조라는 경제적 목적에서보다도 현장 경험을 획득하고 실 사회생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부직 경험은 졸업 후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산적인 기능의 발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부직 경험과 졸업 후 취업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직 학생에게 적업 준비 훈련에 해당되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신규 사원 채용시 과거의 부직 경험을 선발기준에 고려하는 등의 고용 관행이 있을 수 있다.

네째, 대학생 부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직 수요자로서의 대학생이나 부직을 제공하는 고용업체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부직 학생들의 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보호해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직은 부직을 찾는 대학생이나 이들을 알선해 주는 대학 및 전문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활성화될 수 없다. 부직의 가치와 중요성을

바탕으로 부직 활성화를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조·지원 풍토가 전 사회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3) 부직 대학생의 알선 및 관리 방안

부직 대학생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부직 담당부서를 강화하고 부직 알선 창구를 일원화하며 기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직 학생을 관리·운영할 것이 요청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대학생 부직 알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문교 부내에 책임부서를 두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노동부의 협조하에 노동시장의 동태를 파악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한된 부직 직종과 기회를 균등 배분하기 위해서는 알선 창구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부직 알선 창구의 일원화는 부직 대학생을 찾는 업체나 단체에서는 물론 부직을 찾는 대학생 그리고 대학의 부직 담당부서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부직 대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이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업적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직 대학생 관리·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대학생 부직에 대한 수요와 요구의 증대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대학생 부직의 실태와 부직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고, 실태와 요구 분석 결과에 터하여 향후 대학생 부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변동요인들은 과거와 같이 부직은 경제적 빈곤계층의 학비와 생활비 충당 수단이라는 편협된 부직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활동과 직업세계에서 조기 경험을 통한 학업생활의 풍요화라는 광범한 차원에서의 부직관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대

학생들이 이들 두 가지 차원의 목적 즉 경제적 동기 충족과 사회적 동기 충족을 위해 부직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부직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대하게 됨을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직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직 기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부직 직종 또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양자간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부직 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총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총체적인 노력이라 함은 부직 활성화란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의 노력이나 정부만의 단독적인 정책 시도만으로는 충분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부직 수요자로서의 대학생과 부직 공급원으로서의 대학과 사업체, 정부간에 협조적 연계 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일반 사회인의 인식 속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부직관이 확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인은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배움과 봉사의 자세로서 부직을 취해야 할 것이며, 대학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교내 부직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행·재정 지원체제에 있어서의 융통성과 각종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업체는 저임금 인력 활용을 통한 단기 이윤추구라는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나 교육복지 또는 사회 인력 개발 활용이라는 장기적 차원에서 부직을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부직 발전 계획을 구상하여 민간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부직 발전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를 해소·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일반 사회인 또한 부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계층의 특수한 필요라는 편협된 부직관에서 탈피하여 부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대학인과 대학, 사업체, 정부, 일반 사회인 모두의 총체적 노력이 수반될 때 부직 문제는 수요·공급의 현저한 불일치라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